

- 주요 뉴스: 미국 지난 1년 비농업 일자리 증가 대폭 하향 조정 금리인하 전망은 강화
 - 프랑스 대통령, 신임 총리로 르코르뉴 국방장관 지명. 예산안 합의는 여전히 불확실
 - 중국, 주권 강조하는 대외무역법 개정 추진. 시진핑 주석은 자유무역 의지 피력
 - 일본은행, 정국 불안에도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 유지. 금리인상도 가능
- 국제금융시장: 미국은 비농업 부문 일자리 증가 조정, 금리인하 기대 등이 영향
 - 주가 상승[+0.3%], 달러화 강세[+0.3%], 금리 상승[+5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금리인하 기대 지속 등으로 상승 마감
유로 Stoxx600지수는 유가 상승에 따른 관련주 강세 등으로 0.1% 상승
 - 환율: 달러화지수는 주요 국채금리 반등 등이 원인
유로화 가치는 0.5% 하락, 엔화 가치는 0.1% 상승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최근 가격 상승에 따른 매도 증가 등이 배경
독일은 미국 국채시장의 영향 등으로 2bp 상승

※ 뉴욕 1M NDF 증가 1386.8원(스왑포인트 감안 시 1389.3원, 0.10% 상승). 한국 CDS 약보합

		9/9일	9/8일	전일대비			9/9일	9/8일	전일대비
주가	미국	6,512.6	6,495.2	+0.27%	국채 금리 10y	미국	4.09%	4.04%	+5bp
	유럽	552.39	552.04	+0.06%		독일	2.66%	2.64%	+2bp
	중국	3,807.3	3,826.8	-0.51%		영국	4.62%	4.61%	+2bp
	일본	43,459	43,644	-0.42%	CDS 5y	한국	19bp	19bp	-0bp
	한국	3,260.1	3,219.6	+1.26%		중국	42bp	41bp	+1bp
환율	달러지수	97.76	97.45	+0.31%	위험 지표	EMBI+	-	368	-
	유로화	1.1708	1.1763	-0.47%		VIX	15.04	15.11	-0.46%
	엔화	147.41	147.50	+0.06%		WTI유	62.63	62.26	+0.59%
	위안화	7.1238	7.1298	+0.08%	원자재	구리	450.1	449.1	+0.23%
	원화	1,387.9	1,390.6	+0.19%		금	3,626.6	3,636.0	-0.26%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ì.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미국, 지난 1년 비농업 일자리 증가 대폭 하향 조정. 금리인하 전망은 강화

- 노동통계국은 지난 1년(24년 4월~25년 3월) 동안 늘어난 일자리가 이전에 공개된 공식 수치(180만개)에 비해 91.1만개(월평균 14.9만개) 하향 조정되었다고 발표. 이는 2000년 이후 최대 조정이며, 확정치는 내년 초에 발표될 예정. 또한 하향 조정은 도·소매업, 레저·접객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발생
- 시장에서는 이번 결과로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고, 이에 금리인하 기대 역시 높아졌다고 평가. CME의 FedWatch에 따르면, 9월 금리인하는 기정사실로(가능성 100%) 판단되며, 내년까지 총 6회의 금리인하(9, 10, 12월 및 내년 3, 6, 10월. 각 0.25%p)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
- 일부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팬데믹 이후 조성된 독특한 상황 때문이라고 분석. 또 다른 일부에서는 전체 일자리(1.63억개) 고려 시 91.1만개 하향 조정이 심각한 오류는 아니라고 평가(RSM US). 전문가들은 내년에 최종 결과가 공개되면 경기가 '24년 4월 정도에 정점을 지났음이 확인될 것으로 예상(Bloomberg Economics). 이는 현재 경기가 이미 하강 국면을 지나고 있다는 의미
- 경제 관련하여 시장에서는 상반된 2개의 시각이 제기. 첫째, 일자리수의 대폭 하향 조정과 부진한 8월 고용, 연준의 목표치 상회하는 인플레이션 등을 고려하면 스태그플레이션 발생 징후가 점차 분명해지고 있다는 주장 존재(Oxford Economics). 이에 주가의 변곡 시기도 점차 가까워지고 있다고 추정
- 둘째로는 고용 둔화에도 소비자의 재무 건전성은 양호하기에 경제 관련 과도한 부정적 인식은 주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BofA, Wells Fargo). 전반적으로 경제활동은 강하고 소비자의 지출도 큰 문제없이 지속되고 있다고 진단. 또한 임금 상승률이 둔화되고 있으나 고용 안정이 매우 높다고 분석(Natixis)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JPMorgan 다이먼 회장, 미국 경제는 점차 약화. 경기침체 진입 여부는 불분명

- 다이먼 회장은 미국 경제가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소비자는 일자리를 유지하고 있으나 자신감이 떨어지고 있다고 지적. 다만, 경기침체로 나아가고 있는지 여부는 불확실하며, 경제에서 상충하는 요인들이 매우 많다고 첨언

■ 프랑스 대통령, 신임 총리로 르코르뉴 국방장관 지명. 예산안 합의는 여전히 불확실

- 마크롱 대통령은 신임 총리로 르코르뉴 국방장관을 지명. 또한 신임 총리에게 내각을 구성하기 전에 먼저 의회와 예산 관련 타협점을 찾도록 요청. 르코르뉴 장관은 바이루 전 총리보다 좀 더 우파 성향의 인물로 평가. 다만, 시장에서는 여전히 의회와의 예산 합의 여부가 불투명하다고 분석
- 이날 프랑스 10년물 국채수익률은 전일비 상승(3.47%, +6bp), 만성적인 재정 불안을 겪는 이탈리아의 10년물 국채수익률(3.48%, +1bp)과 비슷한 수준 기록

■ 이스라엘, 카타르의 하마스 협상단 타격. 친서방 아랍국 공격은 이례적

- 이스라엘군이 카타르에 거주하던 하마스 고위 지도부를 공습. 미국이 제시한 협상안을 논의하던 협상단과 친서방 국가인 카타르를 공격한 점은 이례적으로 평가

■ 중국, 주권 강조하는 대외무역법 개정 추진. 시진핑 주석은 자유무역 의지 피력

- 상무위원회는 대외무역법 개정을 착수. 입법의 목적은 국가 주권·안보·발전이익 수호 등이며, 무역은 국가의 경제 및 사회 발전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규정도 추가. 왕원타오 상무장관은 주권·안보·발전이익 등을 해치는 외국 개인·조직에 대해 중국과의 무역을 제한 혹은 금지할 수 있다고 발언
- 한편, 시진핑 주석은 포르투갈 총리와 만나 다자주의 및 자유무역을 강조. 또한 국제정세가 복잡할수록 중국과 유럽은 소통 및 협력 강화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

■ 일본은행, 정국 불안에도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 유지. 금리인상도 가능

- 블룸버그는 여러 관계자 발언을 인용하면서 일본은행이 정국 불안 속에서도 연내 금리인상을 배제하지 않는 등 기존의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고 보도
- 아울러 4/4분기 국채매입 계획에 따르면, 잔존 기간 10~25년 이하 국채의 경우 매입 규모를 소폭 줄일 가능성. 최종 감액 규모는 17일 예정된 20년물 입찰 결과를 확인한 후에 결정할 것으로 예상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 이벤트(9/10일 현지시각 기준)

- 미국 8월 생산자물가, 7월 도매재고, 중국 8월 소비자 및 생산자물가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미국 증시, 양호한 기업 실적·규제완화 등 낙관적 전망 가능한 이유 존재 - Financial Times

(Six reasons to be cheerful about the stock market)

- 미국 증시 전망 관련하여 높은 밸류에이션, 고용둔화, 재정 악화 등으로 부정적 견해가 제기. 그러나 다음과 같은 긍정적 측면도 고려할 필요. 첫째, 대규모 자본지출 예상. AI 붐 이후에도 높은 수준의 투자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예상
- 둘째, 기술부문과 필수 소비재 부문 등 기업 전반의 이익이 증가. 셋째, 가계 및 기업의 양호한 재무 건전성. 넷째, 규제완화로 인한 기업활동 촉진. 다섯째, 연준의 금리하락에 따른 중소기업의 자금 부담 완화. 여섯째, 연준의 독립성 우려는 과도하며 ‘굿 거버넌스(good governance)’를 통한 효과 기대가 가능

■ 미국의 고용 둔화, 수요 부족이 아닌 잘못된 정책에 따른 공급 감소가 원인 - Financial Times

(The US labour market is still pretty warm)

- 8월 부진한 고용지표로 노동시장 우려가 심화. 이를 통해 노동수요 약세, 일시적 현상일 가능성, 노동공급 악화, 수요와 공급 동시 둔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추정 가능. 현재 노동시장은 관세, 이민 제한, 정부 일자리 감축 등 트럼프 대통령의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잘못된 정책으로 노동 공급과 일자리 증가가 타격을 받는 상황
- 하지만, 기존의 소비 지출 수준 유지, 역사적 기준에서의 낮은 실업률 등은 노동 수요가 견고하다는 증거. 이는 노동시장이 심각한 상황은 아니며, 노동 공급 약세 요인의 해소 등으로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반증

■ 국제 금 가격 상승, 인플레이션 우려·주식 투자 헤지 수요 등으로 지속 예상 - 블룸버그

(All That Glitters Is Cognitive Dissonance)

- 연초 이후 금 가격은 37% 올랐고, 금년은 30년 만에 가장 높은 연간 상승률 기록할 것으로 예상. 최근 상승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우려, 트럼프 무역정책 불안정성 및 달러화 약세, 각국 중앙은행의 금 매입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한편, 금 가격은 이전까지의 상승에 따른 부담에도 다음의 이유로 추가 상승 가능할 것으로 기대
- 첫째, 미국 주가가 최고점 부근에 있으나 채권 가격 역시 크게 올라 채권을 통한 헤지가 어려운 상황. 이에 위험 헤지를 위한 금 매입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 둘째, 미국 무역 및 연준 관련 정책의 지경학적 위험 상존. 셋째, 연준의 금리인하 사이클 재개 전망. 넷째, 위에서 거론한 상승 원인들이 지속될 가능성

- **미국 정부의 현대차 조지아주 공장 단속, 외국인 투자유치 전략에 배치 - 블룸버그**
(Raiding Georgia's Hyundai site makes no sense)
 - 트럼프 행정부는 조지아주 현대-LG 배터리 공장에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이민 단속을 집행, 주요 동맹국인 한국을 자극. 이는 미국의 제조업 확대와 외국인 투자 유치라는 정책 목표와 정면 배치되며, 트럼프식 이민 정책의 결함을 노출
 - 외국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려면 숙련된 엔지니어와 시공 전문가의 파견이 필수적이거나, 트럼프 행정부는 현대차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국 기업들의 취업 비자 발급 문제를 방치. 또한 유효한 비자 소지자까지 단속하면서 혼란이 가중
 - 이번 단속은 조지아주 역사상 최대 경제 프로젝트에 타격을 입혀 기업과 주정부 모두에 피해를 주고, 현대차의 추가 투자 계획에도 부정적 영향. 트럼프식 강경 이민 정책은 제조업 부활 명분과 충돌. 취업 비자 제도의 전면 개편이 시급
- **글로벌 채권시장, 재정 위험 불구 금리인하 기대 증폭 등으로 낙관론 확산 - 블룸버그**
(Global Bonds Re-Enter Bull Market as Fed Easing Bets Extend)
- **미국 석유산업 종사자, 공급 과잉 우려 등으로 일자리 감소 위험에 직면 - 블룸버그**
(Oil Field Job Cuts Pile Up in the US Shale Patch for Fear of a Glut)
- **중국 주도의 글로벌 공급망, 미국의 對中 관세 제재 이후에도 지속 - The Economist**
(Chinese trade is thriving despite America's attacks)
- **각국의 공공부문 AI 사용 증가, 기술주권 확보가 주요 과제로 부각 - Financial Times**
(Should the public sector build its own AI?)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